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72)

禍其始此矣

화 기 시 차 의

환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광화문에는 두 개의 동상이 있다. 하나는 세종대왕(世宗大王)의 동상이고, 다른 하나는 칼을 잡은 이순신(李舜臣)의 동상이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에서부터 각 분야의 걸쳐 혁혁한 업적을 이루도록 한 성군(聖君)이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 수군을 서해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기에 이 두 분은 우리가 두 고두고 기억해야 할 역사적 인물이고 그래서 광화문에 그상을 세운 것이다.

역사는 지나간 일이고, 지나간 일은 다시 올 일 없는데 왜 지난 시절의 역사를 기억하려고 할까? 아마도 지난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려는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지난 일과 똑같은 일은 반복하여 일어나지 않지만, 그때 일었던 옷을 지금 것으로 바꾸고 그때 사용한 도구를 오늘날 것으로 바꾸어 놓고 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역사적 교훈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적 맥락 없이 그저 과거를 치켜세우고 자랑하려 드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우리 조상이 과거에 지금 중국의 산동 반도까지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것이 정말일까 아닐까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능력이 과거에 그렇게 훌륭했는데 지금은 한반도 안에 갇혀 있으니, 마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10만 평의 땅을 다 팔아먹고 겨우 1만 평 유지를 하는 상황과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만 평으로 가지고 있던 조상의 후에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팔아먹은 샘이니, 우리는 조상이 물려 준 것을 다 팔아먹은 불肖(不肖) 후손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흉하는 집안은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낫고, 아들보다 손자가 더 나은 경우이다. 그 반대로 선조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그후손이 선조의 업적을 깎아 먹었다면 그것은 망해 가는 집안의 문명하다. 그래서 산동 지역을 우리의 옛 땅이라는 주장을 들다 보면 우리는 망해 가는 집안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세종대왕과 이순신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보는 태도는 세종대왕을 날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보노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즉 전철(前轍)을 밟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역사는

성공한 역사도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실패한 역사도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과거 역사 가운데 실패한 어느 집안 이야기를 해 보자. 후한(後漢) 말은 구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등장하기 위하여 소용돌이치던 시기였다. 처음에 대단한 기업을 토하였다가 후에는 무너져 버린 집안도 있고 물론 그 반대의 인물도 있다. 후한 말 최고의 정점에 올라갈 정도였다고 여지없이 망해 버린 사람들을 들고와 한다면 원소(袁紹)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후한 말 밤하던 10상시(常侍)의 목을 베고 동부지역의 강자로 등장하여, 당시에 서부지역에서 장안으로 달려온 동탁(董卓)에 대응(對應)하려는 동부지역 강자들이 힘을 합치자고 하면서 원소를 맹주(盟主)로 추대하였다. 그 후에 서부의 강자 동탁(董卓)과 여포(呂布)가 무너졌으니 동부지역의 맹주인 원소는 권력을 움켜쥘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다.

동탁도 죽고, 그 세력인 여포도 죽고 나서 동부지역에서 많은 세력이 등장했지만, 원소의 세력은 단연 으뜸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신흥(新興)하는 조조(曹操)에게 관도(官渡)에서 패전하면서 화를 뜯고 분해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는다. 사실 실패한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이니 왜 실패했는지를 반성하고 다시 일어날 궁리를 하는 생활함이 없이 화부터 낸 것이니 부통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 시기를 기록한 자치통감을 보자. 원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원담(袁譚)·원희(袁熙)·원상(袁尚)이다. 원소의 후처 유씨(劉氏)가 자기 소생인 원상을 좋아하여 자주 원소에게 칭찬하니 원소가 후계자로 삼고자 하였으나 아직 이를 드러내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원소는 마침내 자기의 장자(長子)인 원담을 죽은 형 원성(袁成)의 양자로 보내어 청주(淸州, 산동성 북부) 자사로 삼아 내보냈다. 형에게 양자로 보낸다는 구실로 장자를 키워 버린 것이다. 이를 본 저수(沮授)가 간하였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1만 명이 토키를 몰아도 한 사람이 그것을 잡으면 육십네년 사람이 다 중지하는 것은 뭐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원담이 장자(長子)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하는데, 그를 물리쳐서 바깥에 거주하게 하면 화란(禍亂)의 시작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원소의 참모인 저수가 원소 집안에 화란(禍亂)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면서 충언(忠言)한 것이다. 그러나 저수의 이 말에 원소는 "나는 여러 아들에게 각각 한 주씩 점거하게 해서 그들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를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라고 변명하였지만, 막내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 주려는 광경에 지나지 않았고, 다시 고지지 않고 그는 죽었다.

이러한 원소의 결정이 원씨 집안에 화를 불러올 것은 분명하니 설사 아버지 원소가 못난 결정을 했다고 하여도 그 이들이 제대로 단합하였다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세력이 아직은 조조를 능가하니 다시 패권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허나 아버지의 뒤를 물려받은 원상은 형 원담의 세력이 커질까 걱정한 나머지 조조를 막으려고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형 원담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 자기 형의 세력을 약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이다. 그러자 화가 난 형 원담은 결국 조조에게 항복한다. 아버지를 이어 실권을 휘원상이 속으로 형 원담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염려하여도 조조를 막기 위하여 장비(裝備)를 보태달라고 했을 때 대의(大義)를 위하여 보태 주었어야 했다. 또 원담도 동생이 자기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적인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은 집안을 망친의 이해만 보다가 망하는 길로 간 것이다.

결국 원소가 죽은 후에 저수의 말은 사실로 나타났다. 원상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지만, 허인 원담과의 다툼으로 결국 원담과 원상, 그리고 다른 형제인 원희마저 조조에게 격멸되고 만다. 아버지는 세 아들이 싸움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이어받은 세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조조에게 어부자리(漁父之利)를 남겼다. 이들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원수 조조에게 모든 것을 다 내준 꼴이 되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원소의 흔적은 아들 대에 와서 꼬리 무너졌다.

원소의 어리석은 조치와 그 아들들의 행동을 보면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원상과 원담이 했던 짓거리가 매일 같이 벌어지지는 것 같다. 사실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적지 않다. 고구려 연개소문의 아들들의 싸움이 그렇고, 임진왜란을 불러온 당쟁이 그렇다. 6.25도 이 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모두 실패한 전철(前轍)이다. 그런데 멀쩡했던 그 옛길을 국회의원들이 따라가고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과 문화인들은 광화문에 세워진 세종대왕의 상을 보면서 그의 창의정신을 본받아 이미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고생시켰고 많은 사람을 사자로 몰아넣게 하였던 대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저수의 말대로 우리와의 화란은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고사성어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고군분투(孤軍奮鬪)

외로울 고. 군사 군. 멀칠 분. 싸울 투.
적은 수의 군대가 강한 적과 맞서 용감하게 싸운다는 뜻

고담준론(高談峻論)

높을 고. 말씀 담. 높을 준. 논의할 논.
뜻이 높고 바르며 엄숙하고 날카로운 말씀. 고상하고 준엄한 이야기. 담론의 품위나 수준이 높고 깊이가 있음을 뜻함.

고육지책(苦肉之策)

쓰다. 쓸 고. 고기 육. 조사 지. 대책 책.
적에게 이기기 위해 자신의 몸을 괴롭히거나 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계책

유래 : 삼국지
적벽대전에서 오나라의 총사령관 주유가 심복 부하인 황개를 이용한 계책.

어느 날 황개는 우리나라 군사를 이길 수 없으니 항복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항소를 주유에게 올린다. 화가 난 주유는 황개를 잡아들여 100대의 곤장형에 처하고 곤장에 맞은

황개는 만신창이가 되어 옥에 갇히는 몸이 되는데, 이때 주유의 진중에서 암약하고 있던 조조의 첨자들이 이 소식을 조조에게 전하고 황개 또한 자신의 심복 부하를 시켜 항복문서를 조조에게 전한다. 조조는 이것이 계략이 아닐까 으심했지만 자신의 첨자도 같은 내용을 전해오자 믿게 되고 결국 황개의 항복을 받아들이게 된다. 황개가 탄 배는 기름을 가득싣고 조조 군사진영으로 접어들고 사방에 조조 군사의 배가 밀집한 것을 확인한 황개는 기름에 불을 붙여 조조가 이끄는 해군은 지리멸렬하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 공격에 나선 연합군은 대승을 거두게 된다.

이처럼 고통스럽게 자기 몸을 희생해 적을 속이는 것을 고육지책이라 하며 고육책이라고 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

외로울 고. 손바닥 장. 어려울 난. 울 명.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내지 못함.
혼자서는 일을 이루지 못하거나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되지 않음.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와 비슷함.

고진감래(苦盡甘來)

쓸고. 다할 진. 달 감. 올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나이 온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참고 이겨내면 좋은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함.

유래 : 논어에 나오는 얘기

한 농부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가난하여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농부는 좌절하지 않고 봉 대신에 솟으로 종이 대신에 쓰기로 했다. 그 농부는 농부로는 항복하는 것은 황개를 잡아들여 100대의 곤장형에 처하고 곤장에 맞은

100만 안동권문! 그리고 북녘의 안동권씨

몇 년 전 '100만 죽친'이란 말에 대해 '아니 인터넷에 70만 이라는데 너무 부풀린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가?'하다가 문득 北에서 온 평창올림픽팀의 예술 단장이 권씨여서 기사를 쓴 적이 있고, 또 북한 핸드폰 앱에 <조선의 성씨>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본적이 있다.

아 그러면 北과 해외 권씨, 특히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에 권씨를 합하면 100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알아보기로 하였다.

'100만 권문'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다가 北(北)의 권문의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통일부의 '북한기관별 인명록'에 나오는 권씨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낮은 것은 아니 재미삼아 보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차후세대에 종친회의 존재의미를 새롭게 하여 이어나가야 종친회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도 작용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이타적이며 실제 도움이 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도한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확장은 물론이거나 나아가 외연을 넓혀서 北과 中, 美, 日 등 해외동포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씨는 현재 南(南)에 75만명 정도이고 北에 17만명 해외 6만을 더하면 98만명이니 100만 죽친이 틀린 말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 산출 근거로서 남은 2002년 최종 인구 집계에다가 20년간 전국 자연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北은 '북한인명사전' 2만 명 중 권씨를 추출하고 또 '권씨 집성촌'을 지명을 통해 추적하고 인명사전에 나온 비율대로 2500만 명의 북녘인구를 곱하여 대략 17만 명으로 추산하



백두산의 장엄한 해돋이는 화평한 거례의 앞날을 밝히고 권문의 융성을 말해주는 듯

였던 것이다. 해외는 남북 합친 비율대로 700만 해외동포에 적용하여 주출한 것이었다. 이것은 권씨가 사실상 단본(單本)이니 가능한 주제이다.

'북한주요인물록'을 보면 그 숫자가 권씨가 130명 정도인데 총 수록된 인물은 모두 8000명 내외이다. 대략 北을 이끄는 지도급 인사이다. 한국 정부로 치자면 부군수급 이상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비율대로 적용하면 북의 권씨는 40만 정도로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권씨가 인구에 비례해서 지도급이 타성에 비해 두 배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황해도에 집성촌이 비교적 많으니 황해도의 지도급에서는 비중이 높게 나왔다.

권오철 기자

뿌리와 효문화 시화 공모전 응모 안내

(사)뿌리공원전국문화협의회에 아래와 같이 시화 공모를 실시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모부문 : 문중의 뿌리와 자랑스런 효(효자, 효부)에 관하여 창작한 시, 시조, 산문시, 기행시를 담은 작품.

2. 작품규격 : 세로로 제작(500X1200mm) 사진파일로 첨부 제출

(이 규격을 베너로 제작하여 전시할 예정임)

3. 접수기간 : 9월 13일(금) 18시까지

4. 접수방법 : 이메일(tcen7@daum.net)로 사진파일 첨부물 접수

5. 응모신청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제출 : 대종회 총무국으로 연락하시면 양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2695-2483)

6. 심사발표 : 2024.9.20.

7. 시상 : 대상 1명(대전 중구청장상. 50만 원 상당)외 금상, 은상, 동상, 입상 등

8. 유의사항

- 2023년 본 응모전에서 동상이상 수상자는 수상에서 제외

- 공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 공모작은 본인이 직접 지은 작품이어야 함.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종보를 구독합시다

안동권씨 종보를 구독합시다!

안동권씨 종보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종보를 구독하면 안동권씨라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종보는 1974년 12월 1일 창간된 이후 50여 년 동안 안동권문을 대표하는 공식 기관지로서 안동권씨 가문의 전통과 문화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인문정신과 학문적 유산, 후학들의 지혜를 모아 매월 1일 자로 발행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보관되고 있습니다.

종보 1부 구독(1년 3만원)과 종보 발전 기금은 대종회의 재정자립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종친 기업의 협찬 광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사무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친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종회 사무처 : 02-2695-2483

▶ 이메일 주소 : andongkwonmun@daum.net

▶ 예금계좌 : 국민은행 계좌(033237-04-006772)

안동권씨 대종회